

‘보문고 숨진 여고생 사건’ 교육청 대처 미흡 질타

이경호 의원 “컨트롤 타워 없어 사고 처리 제대로 못해”
김나운 의원 “지난해 학교 음식물 쓰레기 6000톤 넘어”

광주시의회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광주시교육청의 학생 자살 업무 관련 컨트롤 타워가 없어 최근 발생한 ‘보문고 여고생 자살’ 사건을 미흡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지난해 광주지역 학교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가 6000t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이경호(민주·북구2) 의원은 7일 열

린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광주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학생 자살 업무 관련 컨트롤 타워를 만들지 않은 채 자살 업무를 교육지원청에 이관해 종합적인 자살 대책과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보문고에서 개학을 앞둔 여고생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 학생이 남긴 유서에는 자신을 괴롭힌 친구의 이름이 남겨져 있었

다”면서 “특히 주변 학생들이 숨진 여고생이 기숙사 내에서 장기간 괴롭힘을 당한 정황을 지속적으로 증언했지만 교육청은 시스템 미비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생활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는데 시교육청은 자살 등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광주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사무분장을 살펴보면, 교육지원청은 학생자살예방 및 사안 처리 업무가 규정됐지만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사무분장표에는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시교육청의 다음 조직개편 또는



이경호 시의원 김나운 시의원

업무분장을 조정할 때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보문고 여고생은 유서를 통해 ‘숨진 나를 발견하게 될 행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 자살 현장을 목격하게 될 이웃을 먼저 생각했던 꿈 많은 여고생을 누가 죽음으로 몰고 갔고, 우리가 왜 막지 못했는지를 깊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업무 조정할 때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날 김나운(민주·북구6) 의원은 “2016년과 2017년 광주지역 각급 학교 1인당 평균 배출량이 24kg인 것이 비해 지난해에는 26.63kg으로 오히려 증가했다”면서 “총배출량 역시 2017년에 비해 36만 2343kg이 늘어난 648만 3237kg, 총 처리비용 8억 2000만원 가량으로 2010년 대비 5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인당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33만 7000원으로 전년도의 30만원에 비해 10%이상 증가했고, 비슷한 학생수지만 배출량이 2배 차이가 나는 학교도 있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무안공항서 떠나는 해외여행 공모전
97개 팀 230명 참여 열기 뜨겁다

전남도와 KT&G, 제주항공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떠나는 해외여행 공모전’ 참여 열기가 뜨겁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참가 서류를 접수한 결과 97개 팀 230명이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 54팀, 서울 12팀, 경기 6팀, 경남 5팀, 대구 4팀, 충남 3팀 등이다.
전남도는 서류 평가를 통해 10개 팀을 선발한 후 실제 여행을 떠날 대상자 5개 팀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5개 팀은 전남도가 지원하는 여행 경비 30만 원과 (주)제주항공이 제공하는 국제선 항공 티켓을 우선 지급받는다.
해외여행은 11월 19-25일 전남에서 1박을 포함해 최대 5박 6일간 하게 된다. 여행 후기 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금은 대상 1팀 120만원, 최우수상 1팀 90만원, 우수상 1팀 60만원, 장려상 2팀 40만원이 지급된다.
이상훈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무안국제공항을 알리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예상보다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며 “2020년에는 대학 측과 협업체로 분기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화순국제백신포럼 개막 2019 화순국제백신포럼이 7일 오전 화순군 화순읍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 구충곤 화순군수, 이준행 화순국제백신포럼 추진위원장, DNA 백신 권위자인 미국 데이비드 와이너 국제백신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항암 면역치료 기업 3곳과 투자협약 체결

화순백신포럼 공장 건립 등 340억 투자
전남도는 7일 2019 화순국제백신포럼 개최 현장에서 국내 치료백신과 항암 면역치료 산업을 선도하는 (주)박셀바이오, (주)지씨씨엘(GCCL), 라이프리버(주), 3개 기업과 34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을 통해 바이오 제약 3개 기업은 항암면역치료제 개발 및 임상시험, 화순백신포럼 내 공장 설립 등을 위해 전남도, 화순군과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주)박셀바이오는 2010년 화순전남대병원 교수진이 창업한 바이오 벤처회사다. 간암과 혈액암 면역치료제를 개발하고 현재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2020년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에 면역세포치료제 기술 투자와 생산공장 설립에 나선다. (주)지씨씨엘(GCCL)은 국내 최대 면역치료제 연구 생산 기업인 GC녹십자셀과 씨엔알리서치가 합작한 중견 제약기업이다. 현재 식약처가 국비

213억원을 투입해 화순에 설립 중인 국가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해 백신 개발의 필수적인 백신 효능평가 시스템을 화순에 구축한다.
라이퍼리버(주)는 급성 간부전 치료제 개발과 발모제 연구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이다. 바이오 인공간(肝) 및 세포치료제 생산을 위해 전남도와 공동 투자한다.
전남도는 3개 기업 유치로 75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면역치료제 연구 개발, 임상, 생산 등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화순백신포럼의 기술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전남 면역치료제 산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화순백신포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백신의 연구부터 제품화까지 원스톱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며 “2020년 완공될 국가미생물실증지원센터, 올해 설계에 들어가는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국 최초 광주 헬스케어 로봇 실증센터 공식 업무

광주테크노파크 2단지서 개관식
고령화 시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의료산업을 선도할 헬스케어 로봇 실증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에 들어섰다.
헬스케어 로봇 실증센터는 7일 광주테크노파크 2단지에서 개관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센터는 병원, 요양원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헬스케어 로봇의 안전성을 시험하고 로봇 제품 상용화를 위한 실증 작업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 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돼 2017년 12월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와 장비 구축에 국비 180억원과 지방비 65억원, 민자 33억원 등 총 278억원이 투입됐다.
센터는 부지 6600㎡, 연면적 3345㎡ 규모로 성능

시험, 신뢰성, 안전성 평가와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공간과 각종 시험인증 장비 39종을 갖췄다.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헬스케어 로봇의 성능, 안전성, 신뢰성을 시험 평가하고 테스트에서 제품 인증, 인허가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검증, 인증을 위해 다른 지역 의료 기관을 찾아다니던 기업들의 불편을 줄이고 고령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다양화해 노인타운, 요양병원 등 기관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금 우리의 관심은 ‘오래 사는 것’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헬스케어 로봇 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센터에 기대와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90만가구 대상 ‘25일까지 가구주택 기초조사’

전남도는 통계청과 함께 오는 25일까지 20일간 전남지역 90만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2019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를 설정하고, 등록센서스의 품질을 개선하며, 준주택 통계의 모집단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태블릿PC를 이용한 전자조사(CAPI) 방식을 최초로 도입, 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전체 가구 중 표본으로 선정된 일부 가구에 대해선 조사원 650여 명이 직접 방문해 ‘빈집 여부’, ‘거처 종류’, ‘건축 연도’, ‘총방 수’ 등 12개 항목을 면

접 조사한다.
조사 가구는 여수가 12만6000가구로 가장 많고, 순천 12만2000가구, 목포 10만7000가구 등으로, 5개 시 지역의 가구가 전체 가구의 54%를 차지한다.
전남도는 지난 10월 조사원을 대상으로 3일간 조사 방법 및 자료 검토 방법 등 통계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표준교육을 진행했다. 문형석 전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은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호된다”며 “통계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면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생명의 땅, 으뜸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전남의 새로운 비전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 복지 실현

-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 전기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
- 영산강·섬진강·탐진강 수질개선, 상·하수도 보급, 지방 상수도 연대화
-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산림 휴양·복지 기반 구축
-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영산강 경관 숲, 재배방지림 및 소독 숲 조성
- 산림휴양시설 통합플랫폼 구축, 숲길 정비 및 휴양지유벨트 조성
- 도민 제일주의 소통행정 및 민원 서비스 확대**
-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 운영, 주민 맞춤형 강좌, 현장소통 간담회 추진
- 위임 민원 확대 및 민원 처리기간 단축, 현장 방문 민원 처리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순천시 백강로 38(연향동) / T. 061-286-7821~4